

‘파란눈 마지막 황세손빈’ 하와이서 쓸쓸히 하늘나라로

황세손 이구 전 부인 ‘줄리아 리’ 지난달 요양병원서 별세 결혼 24년만에 이혼... 조선왕가 유물·사진 450여점 기증도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세손인 이구(李玖·1931~2005) 씨의 전 부인인 ‘줄리아 리’(본명 줄리아 멀록)가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향년 94세.

이구 씨의 삼종질(9촌 조카)인 이남주 전 성심여대 음악과 교수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줄리아 리가 지난달 26일 미국 하와이 할레나니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말했다.

이 전 교수는 “줄리아 리가 생전에 한국에 묻히길 바랐는데, 임망한 딸이 화장한 뒤 유해를 태평양 바다에 뿌렸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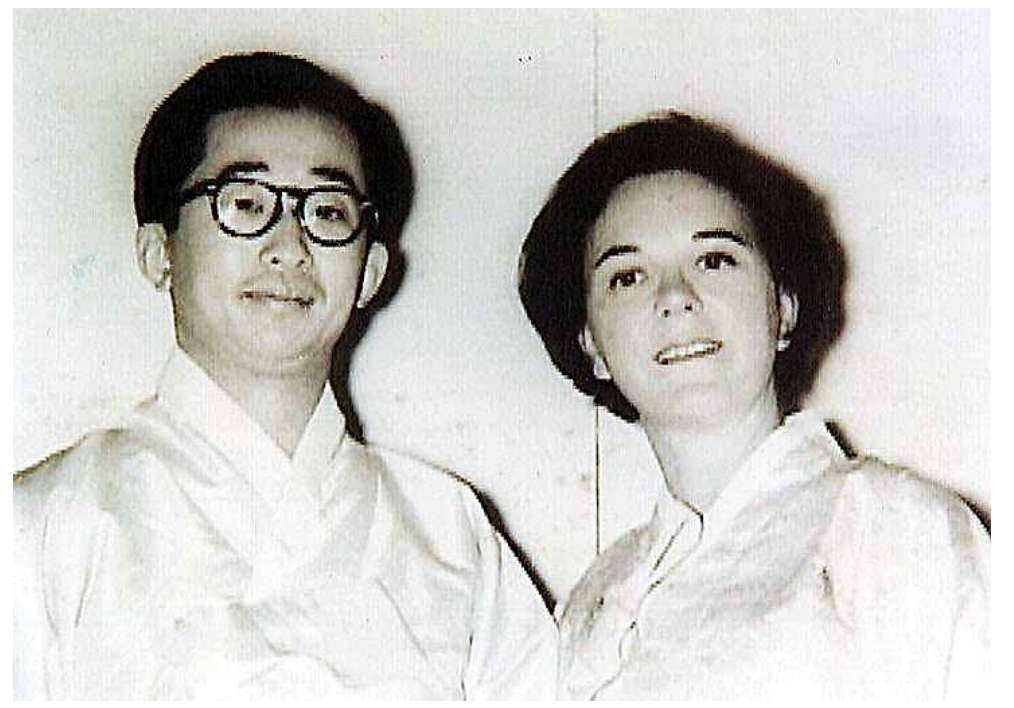
독일계 미국인인 줄리아 리는 1958년 미국 뉴욕의 세계적인 건축가 이오 밍 페이(I.M.Pei)의 사무실에서 이구 씨와 만나 결혼했다. 나이는 줄리아 리가 8살 더 많았지만, 이곳저곳을 떠돌아야 했던 이구 씨는 그녀에게 연정을 느꼈다. 이구 씨는 고종의 일곱째 아들이자 황태자인 영친왕 이은(1897~1970)의 유일한 생육으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세손으로 불렸다.



시아버지 영친왕 이은과 함께한 줄리아 리.



2005년 내한 당시 줄리아 리.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세손인 이구씨의 전 부인인 줄리아 리(본명 줄리아 멀록)가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젊은 시절의 부부 모습.

줄리아 리는 2000년 한국에 잠시 돌아와 그동안 간직해 왔던 조선 왕가의 유물과 사진 450여 점을 덕수궁박물관에 전달했고, 이는 방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평생 이구 씨를 그리워했던 줄리아 리는 전 남편을 만나지 못했다.

일본으로 떠난 이구 씨는 2005년 7월 16일 도쿄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슬하에 자식이 없던 탓에 누구도 임종하지 않았다. 그나마 그의 영결식은 7월 24일 서울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당시 이구 씨의 전 부인인 줄리아 리(본명 줄리아 멀록)는 마침 한국에 잠시 머물고 있었지만, 정례식에는 초대받지 못했다. 모자를 꼭 눌러 쓴 채 휠체어에 앉아 노제를 바라보는 모습이 방송사 카메라에 잡혔을 뿐이다.

이 전 교수는 “작년 10월 하와이에 가서 만났을 때만 해도 말도 알아듣고 의식이 있었다”며 “남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두 분이 재회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의 장례는 수양딸이 치렀고, 유해는 바다에 뿌려졌다.

“줄리아 리는 남편을 항상 그리워해서 삼종숙부의 이야기를 자주 꺼냈다”며 “죽은 뒤에는 유해의 일부라도 한국에 보내지길 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줄리아 리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이혼한 탓에 사후에도 재회하지 못했다.

이구 씨의 무덤은 고종과 순종이 묻힌 남양주 흥유릉(洪裕陵) 영역에 마련됐으나, 줄리아 리의 유해는 바다에 뿌려졌다.



광산 출신 박용철 시인 시비 제막식 바르게살기운동 광산구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광산구협의회(회장 김승진)가 민족 애국 시인인 용아 박용철 선생의 뜻을 기리는 시비를 제작, 지난 5일 제막식을 가졌다. <사진>

황룡강 진수공원에서 열린 이날 시비 제막식에는 150여명의 광산구 기관단체장 및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및 지역 문인들이 참여했다. ‘떠나가는 배’로 이름 지어진 이번 시비는 지역 문인 출신으로 현대 문학의 개척자이자 민족 애국시인인 용아 박용철 선생의 민족혼을 기리기 위해 고향에 건립했다.

김승진 회장은 “지역민들의 가슴에 용아 박용철 선생의 민족혼과 문량이 ‘떠나가는 배’와 더불어 깊이 스며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비 건립 비용은 바르게살기운동 광산구협의회가 지난달 광주여대유니버시티아드체육관에서 ‘지역사랑 희망바자회’를 통해 모은 5000여만원의 성금으로 이뤄졌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고흥군수협 ‘희망나눔 캠페인’ 1억 기부

고흥군수협(조합장 이용재)은 지난 5일 고흥군청 상형실에서 ‘희망2018 나눔 캠페인’에 1억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사진>

고흥군 수협은 100년의 역사와 1만1000여명의 조합원을 보유한 수협으로,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1억원의 톨큰 기탁을 했다.

이용재 조합장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기탁하게 됐다”면서 “조합원과 수협 직원들 모두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u@kwangju.co.kr

광주계수초, 김장김치 경로당 전달



광주계수초등학교(교장 윤완근) 전교학생회와 학부모들은 지난 5일 직접 담은 김장김치를 인근 경로당에 전달했다. <광주계수초등학교 제공>



대유그룹, 사랑의 열매 기부금 2억5329만원 전달

대유그룹은 최근 KBC광주방송 시청실에서 사랑의열매 전달식을 갖고 기부금 2억5329만5000원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희망 2018 나눔캠페인’으로 3018년 1월31일까지 73일간 모금을 진행하는 것에 맞춰 마련됐다.

대유그룹은 박영우 회장이 사재 5000만 원을 기부했고, 계열사인 스마트저축은행에서 1억원, 대유에이텍이 5000만원, 대유에이텍 임직원이 329만5000원, 대유위니아가 5000만원 상당의 현물 등 총 2억5329만5000원에 달하는 기부금과 물품을 기탁했다.

박영우 대유그룹 회장은 “올해 대유위니아 본사와 생산공장을 광주로 이전하면서 그룹이 광주시대를 개막하게 됐다”며 “예년보다 추운 겨울이 예고돼 있어 어려우신 분들이 좀더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 보건대 방사선과 ‘선사모’ 사랑의 연탄 기탁

광주 보건대학교 방사선과 동문, 선·후배 모임인 ‘선사모’는 최근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에 위치한 영광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연탄 1000장을 기탁했다. <사진>

이날 열린 연탄 기탁은 평소 회원들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지역 아동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진행됐다.

유선종 회장을 비롯한 회원 35명은 매년 실시할만 모금된 금액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탁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과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유 회장은 “선사모 회원들은 병원을 찾아오시는 환자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이웃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항상 품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KSD 성과연계형 장학사업

광주여성상 단체·개인 1위

금융·회계 특성화고인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 김홍록)는 6일 한국여타결재원(KSD) 나눔재단이 주최한 ‘2017 성과연계형 장학사업’에서 단체 및 개인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KSD 성과연계형 장학사업은 특성화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경제·금융이해력 측정 시험을 통해 성과 우수자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국 36개 특성화고 학생 360명이 참가한 이번 단체별 TEST에서 광주여성상 A+등급(2명)·A등급(4명)·B등급(1명)·C등급(3명) 등 10명을 배출, 모두 1080만원의 장학금을 받게 됐다.

인중 시험별 최우수자에게엔 150만원, 학교별 우수자에게엔 각 100만원씩 수여된다. 또 학생들은 성적에 따라 장학금이 차등지급된다.

윤기연 지도교사는 “앞으로도 광주여성상의 금융교육 노후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금융기관의 취업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6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 ▲주승기(주.일광기업 이사)·고(故)김복선씨 아들 양준(베드코) 조기원씨 딸 아연양=9일(토) 오후 1시 30분 광주 용봉동 성당.
- ▲강백수(전 KT 근무)·유남희씨 차남 우진(동명중 교사)·신민호(서구청 세무 1과장)·오영씨 차녀 혜수(송정서초 교사)양=9일(토) 오후 1시30분 라페스타 4층 디아망홀.
- ▲최경탁·허정숙씨 차남 희동군 최일기·정정자씨 차녀 다영양=10일(일) 낮 12시 프라도호텔 웨딩홀.
- ▲김상윤(전 광주시청, 도시공사)·나선희씨 막내 민선군 박종암·오옥씨 장녀 근영(불로초등학교)양=17일(일) 오전 11시40분 더케이웨딩홀(구 광주교직원웨딩홀) 3층.
- ▲김영복(담양군 사이클연맹 회장)·김인자씨 장남 은성군 김연주·김사남씨 장녀 현아양=9일(토) 오전 11시 광주 상무지구 라뷰웨딩홀 3층 더 하우스홀(김대중컨벤션센터 맞은편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옆).

동창회

- ▲정광중31회·정광고29회 송년회=8일(금) 오후 7시 월곡동 가족회관 회장 김일근 010-5664-6503.
- ▲장성 동화초등학교 총동문회(회장 구구)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9일(토) 오후 4시, 모교 체육관.
- ▲춘양초교 39회, 남교 5회, 중 1회 동창회(회장 박현수)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개최=9일(토) 오후 6시 삼영예식장 3층 062-654-1333.
- ▲동곡대 광주동문회 송년의 밤=12일(화)오후6시30분 일송정(광주일고 앞) 회비 3만원. 010-3600-6199.

향우회

- ▲재광 장성 동화면 향우회(회장 강대석)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7일(목) 오후 6시 첨단 CGV6층
- ▲재광보성군향우회(회장 박재순) 정기총회 및 송년밤 개최=7일(목) 오후 6시30분 KT문화센터 4층(동구청 뒤) 062-222-

0728.

종친회

- ▲안동권씨 광주종친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9일(토) 오후 6시30분 무등산 중심사 주차장 입구 수자타 062-222-1145.

알림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무로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로 음향장비(엠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홍닥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

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솔 및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모집

- ▲대촌FC 화·목 야간 축구 회원 모집=자격 45세 이상, 오후 6시30분 남구 대촌중학교 운동장 문의 010-4271-9659.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 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솔,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 ▲푸른길통통문화마을 회원=푸른길지킴이 활동을 함께하실 분은 누구나 지원 가능(상시모집) (사)우리문화예술원 062-523-0474.
- ▲각화문화의집 프로그램 회원=바이올린교실(매주 토요일 오후 1시~오후 4시 30분), 하모니카(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오후 3시), 노래교실(매주 월요일 오후 3시~오후 4시30분) 등 수시 회원 모집.

집, 광주 북구 각화동 480-41번지 062-265-9337.

부음

▲이종권씨 별세 이근홍·봉주·수환·창주씨 부친상 김미연·이광희·김선희씨 시부상=발인 7일(목)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謹 참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201호 故 최정자 님(여/87세) 子/子婦: 박광규/사연민, 석규/정미혜 女/婿: 박화자/안병통, 화영/최용권 • 발 인: 12월 7일 • 장 지: 영락공원 • 연락처: 227-4381	401호 故 김치녀 님(여/101세) 子/子婦: 나춘용/은화자, 기용, 민용 • 발 인: 12월 7일 • 장 지: 영락공원 • 연락처: 227-4383
402호 故 황희순 님(여/86세) 子/子婦: 강영식/박미자, 현식/외영미 女/婿: 강순희/박영기 孫: 현진 • 발 인: 12월 8일 • 장 지: 화산동면 선영 • 연락처: 227-4314	102호 故 김석환 님(남/73세) 子/子婦: 김호철/손지음, 호민/박희순 未成人: 이순성 • 발 인: 12월 7일 • 장 지: 영락공원 • 연락처: 227-4385
함께 할 10년, 함께 할 100년 금호 장례식장 062-227-4000 대표이사 구제길 www.mykumho.com	